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수요성경공부가 시작되는 동안은 화요일,수요일,금요일에만 아침묵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며 목요일 아침에는 수요성경공부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3. 가을소풍

10월 6일(주일)에 가을 소풍을 떠날 예정입니다. 날씨를 보고 자세한 일정은 차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9/8)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840.00

9:15: 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8:22-25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도대체 누구시길래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월 22일	9월 29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예다시)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가족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나 현명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허락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쉽게 설교해도 못 알아 듣는 사람은 못 알아 듣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설교해도 알아 듣는 사람은 알아 듣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지적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허락되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지혜, 비밀은 곧 구원을 의미하고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단지 생명의 연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밝혀주신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립니다. 지옥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비밀에 눈을 뜬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게 되는지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나 한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락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은 한낱 허무맹랑한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이하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길가 밭, 돌짜 밭, 가시덤굴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고 물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족도 몰라보고 배신하는 페룬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를 가족으로 설명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주님의 말씀, 지혜, 비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이 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동안 자신이 알던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였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인정 받으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지혜를 가진 자들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자랑하며 그 말씀 안에 행하며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과 평안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행함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의 가족인가?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과 지혜를 알고 행하고 계십니까?